

2013. 05.25 전파연구

발표자: 송지예, 심재훈 외, 『화이부동의 동아시아학: 민족사와 고대 중국 연구 자료 성찰』, 푸른역사, 2012

참석자: 하영선, 전재성, 김상배, 손열, 윤비, 이헌미, 송지예, 권민주, 용채영

이헌미: 최근 한외사에서 Li Feng 책을 읽었고, 최근 조선정사를 읽으면서 중국 고대사로부터 한국의 고대사 혹은 한국의 고종세사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를 고민. 중국의 문헌학 말고 다른 자료들을 발굴하려는 노력들이 아주 낫설지는 않음. 발제자의 지적처럼 두에라의 글도 기존의 논의를 정리한 측면이 큼. 민족주의 사학 대 탈민족주의 혹은 성찰주의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것도 이미 낫았다는 느낌. 최근 동북아 공정 이후의 느낌은 해석의 정치학을 남겨둔 채로 새로운 해석의 발굴, 고고학적인 출토작업으로 넘어가고 있음. 하영선 선생님은 새롭게 출토되는 다양한 자료들, 금석학, 청동기 금문을 한국학자들이 도외시하고 무시한다고 염려를 표시하는데 정치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쇼네시와 같이 글자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금문의 글자해석에 뛰어들어서 다투기는 어려울 것 같음. 재미있었던 것은 이성시의 글과 리핑의 글. 문자해독에 관한 리핑의 글. 기존에 제기중심으로, 종교적 기능만 했던 청동기의 기능이 소수의 국가행정에 관련된 관료들만이 문자, 청동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서주 국가가 초기적 형태의 귀족들과 연계되어서 상당히 일상에 영향을 끼칠만큼 고대국가가 발전했고, 그만큼 고대문자가 발달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자기 연구자들도 도자기에 새겨진 글씨들로 연대추정을 하는데, 우리도 고대동아시아 국제관계를 하려면 역사학자, 예술사학자에게 배우고 그에 기반하여 국가-사회관계, 국가의 형태를 추정하는 작업을 시도해 볼만 하지 않을까.

이성시의 광개토대왕비 해석의 경우 삼국시대관련 중국정사 조선전을 읽고 있음, 고구려, 왜, 신라가 낫설지 않음. 고대사의 정치체를 오늘날의 근대 nation-state와 연속성상으로 생각해서 점유하려는 것이 학문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가? 검증될 수 없다는 답. 하지만 역사는 낫선 대상이고 점유해야 할 대상이지. 이성시 선생이 지적하는 제국주의 시기가 전통의 발명의 시기이고, 근대 국민국가 사에서는. 고대 고구려 사 등이 신채호 등에 의해 부각된 것은 사실인데, 이성시 선생도 동아시아, 광개토비의 해석이 일본발이라고 검증하고 있음. 이 부분을 딱히 논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본발이라는 것도 일본 연구자라서 부각된 것이 아닌가. 심재훈 선생처럼 민족주의 서술이 인류보편적 가치로 되는 역사서술은 어렵지 않은가?

윤비: 사상의 invention. 모든 주의들은 다 그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계보를 구축. 그 계보 위에 내가 서있다고 함. 그렇게 구축한 과거사가 내가 보려는 것, 알려는 것과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물어보는 작업은 정치학자와 역사학자로서 시도를 해보지만 값지면서도 오래고 힘든 작업인 것 같음.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학, 인문학자들과 가진 느낌. 인문학자들이 자신들이 쓰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naive하다는 것이다. 중화제국, 과거 고대의 제국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음. 제국이 같은 것인가? Empire가 동일한 실체들인가? 근대 존재한 일본 제국이 과거의 고대 제국과 같은가? 왜 현대의 제국주의의 반대 쌍은 민족주의인데 고대에서는 왜 민족주의가 안 나왔는가? 고대 제국의 반대쌍은 민족주의가 아니었음. Homogeneous한 제국이 아니라 상이한 제국들이 있었음. 둘째, 보편인류적인 역사구성이 뭘까? 16세기에 에라스무스의 질문은 아니 교회

사와 로마사 이후에 민족사라는 것이 무엇인가였음. 에라스무스는 민족이 규범적 집단으로서 독자적 역사를 쓴다는 것이 16세기의 머리에 없었음. 민족이라는 것이 튼튼한 정치적 실체로 보여지게 시작하면서 민족사를 쓰기 시작한 것. 민족과 구별되는 다른 실체에 대한 관념이 생각되는 것. 우리가 인류보편사를 쓰는 것이 애매한 것은 그것이 명확한 실체로 등장하지 않아서가 아닌가. 그렇다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임. 2차 대전 이후엔 민족사를 넘어서기 위해 유럽인들은 유럽사를 씀. 과연 world system이 존재하는가, 존재하면 인류 공동사도 쓰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헌미: 선진시대의 문헌학을 통해 고대사 재구성의 문제는 고대 통일시대의 정사들이 일정한 편견을 갖고 편찬된 것임을 증명. 후대 편찬, 위조된 문헌이 아니라 그 시대 자체를 보여줄 비문헌적인 사료들의 발굴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 지난 사행의 국제정치. 왜 그 사람들은 고증학에 꽂혔을까? 일종의 방법론, 금문, 방법론의 변화에 대한 그 이전의 역사적인 방법론 사를 다뤄본 적이 있나? 없음.

하영선: 상대적으로 그런 전통이 없는 것이 심선생이 알고 그런 개탄을 하는가 하면 고증학이 뒤떨어졌던 이유는 요즘 우리가 미국, 서양의 학문을 수입하지 않는 형태가 아니라 사실은 고증학이 청 대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것은 당시 내려오는 주자학을 상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은 아직은 주자의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 방법론을 열심히 받아들이면 자기 부정이었으므로 덜 했던 것임. 다산이 그러므로 다 새로 쓰자. 주자주가 아니라 다산주를 붙임. 그렇게 되면 사서삼경, 사서오경의 텍스트가 고문이나 위서냐를 다 따지게 되면 청대의 많은 서술이 그 시대의 presentism에 의해서 재구성 된 것인데 그것을 경으로 모시는 것이 웃기지 않는가가 있음. 우리 전통에서 공부해볼 필요는 있음. 다산은 더 추상적으로 갔고, 북학팀은 당시 고증학을 수용, 왜 나머지 조선지식인들이 왜 안 했나? 왜 성균관대가 안 하는지? 동양의 전통이 텍스트를 다 해체에서 다시 읽고, 하는 것. 고증학의 실질적 성과는 있는 것이 분서갱유 이후 텍스트가 없어졌으므로. 암기한 것으로 다시 복원했는데 실제 서주의 갑골문은 그 당시의 문자이고, 그 뒤에는 금석문으로 새긴 것. 당시의 글자들이고 기껏 글자들을 한나라 때에 만들었더니 죽간들이 쏟아짐. 시대변화에 따라 다른 텍스트들이 등장하는 문제 이를 꼼꼼히 하지 않은 이유는 그 학문에 무식했던 것도 아니고, 방법론으로 꼭 채택해야 하는지의 저항감이 있었을 것.

윤비: 성균관에서 약한 이유는 조선에서 고증학이 약했던 전통에서 이어진 것임. 선생의 작업을 바꾸면 사문난적이 됨. 국내에서도 소수이므로, 어느 한쪽에서 파문 당하면 안 됨.

김상배: 동아시아역사관점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한국역사에서 쓰여진 것이 없어서 아니었나? 상해갔을 때, 서주시대의 글들이 전시되어 있음. 그 지역의 봉건영주, 군주들이 임명장을 준 것을 다 글씨를 써둬. 그런 자료들이 있다면 연구했을 것

하영선: 고대로 갈수록 문화격차가 엄청났음. 이들의 갑골문은 상당히 추상화된 것이었는데 당시 우리의 글자는 없었음.

전재성: A.D 400년 이전에는 글로 남긴 것이 별로 없음.

하영선: 갑골문의 추상성 뛰어남. 오늘날 보기에 상당히 고차원의 이야기. 뒤에는 간격이 줄어들었지만 동아시아에서 중앙이 가장 빨리 갔음.

김성배: 미디어의 공간전파가 쉽지 않았다. 청동기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죽간, 종이 같은 것이 아니므로 정보의 distribution이 쉽지 않음.

하영선: 송대 작업도 그렇고, 전파, 한외사 다 걸리는 문제인데 하나는 시각의 문제 둘 째는 자료의 문제. 심 선생 수준에서 머무를 수 없다. 서양에서 training된 동양 고대사들을 한 사람이므로 결국 이헌미 박사의 이야기대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시각에서 내놓을 수 있나? 왜 문제가 크나? 중국이 최근에 와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중화민족 유대 부흥. 시진핑의 china의 100년의 drama의 main title이 중화민족 미래부흥임. 이것에 섬찝한 것은 왜 이런 타이틀일까? 미래지향을 하는 시점에서 중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걸림. 처음의 생각은 화이로 설정을 함. 화이 곧 중앙이고, 화와 이의 관계를 versus로 놓는가 and 로 놓는가, 화이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것으로 두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의 position은 무엇인가? 단순히 고대사의 논쟁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미래사의 논쟁이므로 일본의 고대사 논쟁, 중국의 사학계의 내부 논쟁 중국은 공정의 project화해서 하은주 단대공정이나 중국사 탐정으로 하는데 title이 자꾸 중화민족의 부흥으로 붙임. 25사의 정리도 동북공정은 작지만 하은주 단대공정의 제목은 통일다민족국가라고 함. 신선생은 다민족 복합체라고 씀. 그것보다는 통일이라는 말 많이 씀. 통일다민족국가의 시각에서 하는 것이 중화민족의 부흥에 연관이라면 그것에 대국과 주변의 관계가 사실은 주변과 중화의 시각. 주변도 중화의 일부라고 설정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임. 두 번째는 일본 고대사 논쟁이 있는데, 일본의 2대 계보가 있음. 동대의 시라토리에서 시작해서, 최근의 호리가 삼대 저작임. 일본에서 하는 방식은 동대하고 교토대가 싸우는데 동대의 경우 3대째 속하는 팀들이 동아시아 세계사라는 시각에서 동아시아를 정리하겠다고 함. 동아시아 세계 속의 일본을 보니까 일본이 또 다른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말을 유행시킴. 동아시아 세계사 논쟁에서 원래 동아시아 세계의 표현을 쓸 때는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쪽을 했던 것에서 호리는 동서남북을 넓혀보자는 논쟁. 나의 지적은 한국은 뭘 하는가? 중국의 다민족 복합국가에서 동아시아사, 일본은 동아시아 세계사를 다룬다면 한국은? 한국은 한국형 동아시아사를 초보적 모양새로 만들려고 한 시도가 있음. 그것을 그냥 놔두면 되는가? 아니면 전파나 한외사 공부 포럼에서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그것의 세련도가 떨어진다고 말할 때가 된 시기라고 생각. 동아시아 복합에 대한 짧은 코멘트를 들은 시점에서 보면 창비를 중심으로 본 동아시아사는 1980년대의 시각 속에서 나옴.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로부터의 해방이 잠재적으로 깔린 느낌이 있다. 기존의 wording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25사를 다시 읽어보는 것은 복합사로 다시 읽으려는 시도인 것 같다. 실제 trend를 보면 여태껏 simple하게 동아시아사를 읽었던 것에 반해서 제국의 성격의 문제도 그렇고, 그 안에서 state들이 얽힌 모습이 북한, 남방, 서방이 통치하는 모습이 다 남겨짐. 복합사적 시각에서 정리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중국이 200년을 내다보고 다민족통일국가, 다민족 복합체로 가는 것과 우리와의 관계는? 역시 화이, 두 개로 나누는 관계설정을 한국 쪽에서 쓰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defensive nationalism을 넘어서, 막연한 보편세계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 정계는 동대학파의 동아시아 세계적 perspective보다도 아베는 훨씬 뒤떨어짐. 사학계의 논쟁은 아시아사

나 한국학계가 일대일로 싸울 준비가 되어있냐고 보면 힘들다. 그런 사실 정치학계, 국제정치학계가 기여해야할 핵심파트가 perspective적이어야 함. 사학은 계속 사료의 backup이 있음. 이 책도 1부는 추상적, 2부가 재미있을 수 밖에 없음. 더 이상 25사나 13경만으로 시공간 재구성의 game은 불리하다.

Presentism에 걸려서 대부분이 한나라 시대의 사서나 경전이나 재구성되어 앞의 전적을 가져오면 결국 미시적인 것이지 정치적 의미가 있을 것인가? 우리의 경우에는 이 시기의 원용으로 국제정치, 천하질서의 재구성을 무슨 텍스트를 가지고 해야하는가. 현대 중국적인 시각, 다민족 국가통일론, 동아시아 세계론이 아니라 더 complex한 modeling을 봐야 하는데 금석문의 첫 번째 박사학위 논문으로 함. 첫째 Landscape and Power의 서주질서. Landscape는 싸움이 일어나는 데 power가 작동하게 되는지를 그 동안의 사서가 했던 것을 보완해서 함. 안과 밖이 결합되어서 시스템복원을 결정. 일본, 중국의 동아시아 사를 관점으로 넘어선다고 해도 제한된 document가지고는 안 된다. 발굴 팀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해주는 것을 봐줄 수도 있고, 재해석 파트는 국제정치적 문제가 선진시대에 어떻게 재구성되었는가의 우리 나름의 시각에서의 정리가 필요하다. 고대사연구지만 결국은 미래사연구다. 어렵기는 함. 우리는 중, 화와 이의 관계가 중요하다

김상배: 그 관계의 제3의 것이 있다면, 복합정체성이 얼마나 형성되었는지 따져야 하지 않을까.

하영선: 천자가 명을 받아 제후한테 임명하는 것을 cosmology에서 하는데 당시까지는 이를 많이 괴롭히지 않음. 서주가 약해지면서 주변 이가 강해지니까 이를 versus로 폄하하는 것이 나옴. 주나라는 없어지고 수동시스템이 되니까 7개가 난무하니까 문화적으로 versus보다는 누구나 파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명분체계가 발생한다. 청나라 즈음 오면 야만임. 영원이 야만은 화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바뀌면 중화가 될 수 있다고 함. 소중화에서 복합 팀들이 청을 무시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21세기적으로 하면 미묘하다는 것. 만약 그렇다면 한국이 파가 될 수 있나?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

김상배: 중화의 시각이 아니라 동의의 시각에서 볼 때의 복원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 현대적 관심에서 시작하는데 구닥다리가 된 것 같은 세계화시대에 왜 민족주의에 우리는 쫓겨있는지. 거기에 정보화와 사이버스페이스가 만들어지는데 민족주의가 심화. 왜 그러한가? 융합, 정보화가 만드는 세계화가 있지만 한중일의 역사사회학적인 것에서 설명이 되어야 함. 일제시대 일본이 쓴 역사적 행위에 대한 저항이 이야기되어야, 근대 서구 민족주의, 제국주의의 유입에 따른 것도 있지만 첫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근대 서구의 들어오기 이전의 민족에서도 이야기

하영선: 원민족 이야기임. 서구형태에서 동원체제로 만드는 nationalism은 없었다는 것. '주의'는 없었지만 민족이라는 것은 얼마나 정체성이 있었는가?

윤비: 유럽도 그러함. 흔히 베네딕트 앤더슨으로 부터 부분적으로 왜곡되어 알려져 있음. 선민의식, 우리민족이 하나의 공동체였다는 생각 다 있음. 이 민족공동체가 주권적 정치단위로 존재했었다라는 것만 없음. 베버적인 시각은 15세기 민족주의 특징은 근대이전에도 다 있다. 8세기, 10세기에 다 있음... 현대 제국주의 모습으로 과거 중화질서를 보고 있음. 우리가 사료들을 읽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다양한 정치체제들을 설명할 수 있는 섬세한 개념체계들을 갖고 있는가? 하나는 hierarchy, 수평적 society. 월츠가 이야기한 두 가지. 두 가지만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vector값과 같은 것을 인식하기 못함. Quato-society. Quato는 그 자체로 수직모델인데 수평인 사회와 연결. 다양한 조직적인 것들이 있었고, 우리는 이를 복원시킬 개념적 도구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사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사료를 보지만 일정한 틀을 갖고 보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같이 봐야. 제국, 서양의 사회학자들. 전근대에 위계-사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해라

하영선: 설명 어려움. 저쪽의 역사서에는 우리는 속국지임. 현대적 개념은 식민지임. 당시의 속국의 개념은 그냥 속한다의 의미. 식민지가 아님. 신청사가 오늘 내일 해도 당시 그때의 구분법에는 조선은 속국임. 현대적 의미에서는 속국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해서 속국을 다르게 번역하고자 하는데. 리핑이 쓰면서 만약 중국의 고대국가를 어떻게 개념 설정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중국어 번역본으로는 일본, 중국, 미국학계가 서주시절, 고대 중국국가를 도시국가로 볼 것인지, 영토국가로 볼 것인지, 봉건 국가인가, segmentary state. 자신이 학위논문으로 데뷔했을 때 쓴 것은 영어로는 delegatory-segment state. 마지막 settlement state는 읍제국가로 되어있음. 밖과 안의 power변화 두 개가 겹쳐서 state-formation으로 재구성을 하면서 한 것.. .. 이런 논쟁이 우리 경우 충분히 있나?

윤비: 독립적으로 자치적으로 움직이는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한편으로 신성로마제국 황제에게 바치는 문서들의 내용을 읽으면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가? 독일, 현대학자들도 그 관계를 못 옮김. 그 관계는 굉장히 '복잡한' 관계다. 하나가 주권국가로 커지면 중심이 되고 다른 1중심, 2중심이 생기는 것이 아님. 그 관계를 설명하려 로마법을 연구한 학자들이 10년씩 주석서를 씀. 읽고 있는데, 읽다 보면 그 생각이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인가? 우리가 잃어버린 질서관이 있는 것임. 이태리와 같은 경우엔 황제, 도시국가의 권위싸움이 있으면 돈을 주고 법학자를 사옴. 법학자를 데리고 와서 로마법을 만들라고 함. 황제는 다시 사서 내 논리로 쓰라고 함.

김상배: 방금 말씀 사인 것은 국가 간의 inter-state의 복합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대중 민족주의는 inter-people간의 민족주의 임. 최근의 지구화, 정보화시대엔 그것이 발견되는 것이 보임. 민족의식, 나와 남의 구별의식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면 동원되어서 발화되지 않았던 매커니즘이 중요했었을 듯. 동이의 시점에서 민족을 어떻게 보는 것, ~주의를 붙이지 않으면 뭐가 힌트가 될지. 최근의 사이버-민족주의는 사이버민족주의의 공간적 특징으로 더 격화되는 것이 있음. 조선은 중국의 식민지였다고 하면 사이버공간에서는 더 심화. 그런 논의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논리체계가 대중들에게 없으므로 더 사이버 war. 우리민족주의자들의 입장은 오히려 우리가 제국이였다. 우리는 한번도 주권을 침탈당한 적이 없다. 민족논쟁은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개념은 서양인들이 만든 200년만 쓴 용어 가지고 하는 싸움이다.

하영선: 더 치열해지는 국가 대 국가보다도 대중 수준에 부딪침이 더하다면, 만약 200년 이전으로 돌아가면 어떤 의미에서는 더 문화적으로 계몽된 것도 있음. 역설적으로 복합적인 것을 찾는 형태로 할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임. 중화와 복합정체성의 이야기보다 평이로운 이야기. 사대자소

안에 중화의 담론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 사례 등으로 찾아볼 수 있을 듯.

윤비: 전근대와 비교연구를 해봐야 알 수 있음. 동양과는 비교 못하고 서양인들도 요새 우리가 봉건이라고 제대로 이해했던 것인지, 다시 돌아가보자고 함. 그들은 오히려 동양에 존재했던 것은 무엇인가? 동양은 뭘 알고 싶어했는지 생각 함